

##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권력지각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지각 HICLAS 방법의 적용

조혜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각되는지를 자유반응을 통해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HICLAS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어머니의 합법적인 힘과 보상적인 힘을 강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라는 지위가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부모와 있을 때의 자기지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으나, 부모가 강요적인 힘만을 가진다고 지각하는 소수의 피험자들은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가 보이는 힘이 일반적으로는 격려와 성장을 위한 힘(power-for)이지만, 강제와 억압을 보이는 힘(power-over)인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부모와 있을 때 여성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경험하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적 특성보다는 남성적 특성을 주로 경험하였다. 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에게 성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관념적 틀을 깨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고 보살피주는 보호자인 동시에,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자녀의 진로와 성취활동을 격려하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며 강요를 하는 사람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형성하는 자아감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기대하며 격려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에게 동일한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법"이 더 우세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머니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살피지만, 사회는 어머니의 희생에 미화하는 동시에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많은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문제는 곧 힘과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Henley(1977)는 남녀차이인 힘과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남성지배적인 사

회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이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한 것은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와 고정관념은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일으켜 여성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없는 태도로 이 세상을 대하여, 실제적인 능력의 차이를 야기시켰다고 본다. 리치(1995)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권력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성권력을 공동소유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성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여성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힘은 초기 신화나 자연질서를 중시하는 선사시대 문명에서부터 경외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카플란과 세드니, 1988). 이와 관련하여 신정신분석학파의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인생 초기 어머니가 가졌던 전능한 힘을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비롯되었다고 본다. Dinnerstein(1976)에 따르면, 어머니가 인생 초기에 절대적인 힘을 지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인간 불안의 원천이 된다고 본다. 초기 모자관계에서 어머니는 자연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소유한 두려운 존재이고, 유아기에 경험한 막강한 어머니의 힘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회는 남성에게 모자관계 밖에서 힘을 갖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여성권력은 두려움이고, 개인은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권력에서 도망하려 하고, 남성의 권력을 수용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언어를 배우고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배워간다. 그러나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들의 주장대로, 근대 가족제도의 특징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모성애를 베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Chodorow, 1987; 조은 등, 1997), 아동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접하는 실제적인 힘있

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남성만큼 갖지 못하다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정립하고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아버지의 힘과 모성애에 근거한 어머니의 힘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본다면 힘과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인에게 부모의 힘과 권력은 각기 어떤 의미로 지각되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달리 지각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힘과 권력

Weber (1946)는 힘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저항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저항, 갈등, 강요, 지배, 통제라는 개념이 힘과 권력의 의미에 들어있었다. 그 이후 학자들도 비슷한 개념에서 정의를 계속해 왔고, Lewin도 “힘이란 타인에게 어떤 정도로 강제할 수 있는(inducing forces)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힘이 다른 사람의 활동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사람의 힘과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French와 Raven (1959)도 “사회적 힘과 권력은 가능한 영향력”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힘의 개념에는 구조적이고 위계적이며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power-over) 개념이 들어있다.

힘과 권력은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되고,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French와 Raven(1959)은 합법적 힘, 보상적 힘, 강요적인 힘, 참조적인 힘, 전문적인 힘을 제안하였고, 그들의 이론을 근거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합법적인 힘이란, 제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때문에 갖게 되는 제도적 힘을 말한다. 보상적인 힘은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 돈이나 칭찬 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다. 강요적인 힘은 개인이 하고자 원하는 행동을 막거나, 하기를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힘이다. 참조적인 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인간적인 이끌림 때문에 그를 따르거나 동일시하도록 하는 개인적 힘이다. 전문적인 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지적인 힘이다. 이러한 유형의 힘은 서로 중복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힘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Raven(1993)은 자신들의 이론을 세분화시켜, 합법적인 힘은 형식적 합법성, 상호적 합법성, 동등 합법성, 의존 합법성으로 나누고, 보상적 힘은 개인적 보상과 비개인적 보상으로, 강요적 힘도 개인적 강요와 비개인적 강요로 나누며, 전문적 힘과 참조적 힘은 긍정적 전문성과 부정적 전문성, 긍정적 참조와 부정적 참조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힘은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학자들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고려하면서, 여러 차원을 제안하고 있다. Johnson(1976)은 힘의 세 차원을 나누어, 직접(direct)-간접(indirect)차원, 유능(competence)-무기력(helplessness)차원, 구체적(concrete)-개인적(personal)차원을 나누고 있다. 간접적 힘은 지각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작(manipulation)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구체적인 힘은 돈이나 신체적인 힘 등 눈에 띄는 힘을 행사하는 것임에 반해, 개인적 힘은 애정이나 승인, 운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무기력한 힘은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 도움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녀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간접 차원, 무기력 차원, 개인적 차원의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Griscom(1992)은 힘과 권력을 남성중심적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는 힘(power-over)만을 강조해 왔지만, 이는 타인과의 연결적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부정적인 힘의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타인을 돌보는 힘(power-for)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는 건강한 모자관계에서 볼 수 있는 양육적인 힘과 같은 것으로, 긍정적인 힘이라고 지적한다. 최근에 여성학자들이 제안하는 empowerment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들이 가지는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이기 보다는 서로 돕고 돌보며 나누어 타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힘일 수 있다(Miller & Cummins, 1992).

권력과 힘이 여러 차원에서 여러 유형이 가능하다면, 이는 또한 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은 크게 4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Deaux & LaFrance, 1998). 먼저 사회적 상황으로, 가부장적 사회이나, 평등적 사회이나, 독재 사회이나 따라 개인의 힘은 달라질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갖는 힘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수준은 조직체(organization)로서, 동일한 개인이라도 가정이나 학교, 교회, 직장에서의 힘의 배열은 다를 수 있다. 세 번째 수준은 상호인간관계 수준으로서, 이자관계나 삼자관계, 집단관계 등이다. 네 번째 수준은 개인 내적 수준이다. 주변의 반응과는 달리 스스로 느끼는 힘의 정도이다.

이와 같이 힘의 차원과 수준을 세분해 본다면,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어머니들도 수준에 따라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다중적 자아

다중자아이론의 입장에 따르면, 각 개인은 다양한 자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Rosenberg, 1996; Ashmore & Jussim, 1996). 개인은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아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과 있을 때의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 William James 이래로, 자기 지식에 타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왔고,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는 “체경 자아(looking-glass self)”가 수용되어 왔다. 이에 근거하여 다중자아 이론에서는 중요한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개념이 각기 다르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자아경험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Kihlstrom과 Cantor(1984)는 자아표상은 상황마다 다른 신념을 표상하는 맥락특수적 자아개념의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Markus(1977)와 Fiske와 Taylor(1991)는 자아표상은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체계로 본다.

다중 자아이론을 받아 들인다면, 특정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고와 행동은 자아의 어느 측면이 활성화되었는가와 관련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서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다(Gergen, 1985). 성격의 5요인(Big 5 theory)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5요인의 표현이 역할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남을 보고하고 있다(Sheldon, Ryan, Rawsthorne, & Hardi, 1997). Ashmore & Ogilvie(1991)는 여러 요소들 중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인들과 있을 때, 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를 드러냄을 밝혔다. 유의미한 타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각 개인에게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상황맥락에서, 어린시절부터 영향력을 미쳐온 가장 의미있는 타인이므로, 그들과 있을 때의 자기 지각이 어떠한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 HICLAS 모델의 적용

다중적 자아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HICLAS 모델이 가능하다(DeBoeck & Rosenberg, 1988; Ashmore, 1990). 이 방법은 0과 1의 이진 숫자중 하나를 갖는 이원적 데이터 배열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한 배열은 표적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배열이고, 다른 한 배열은 특성들의 배열이다. 이러한 배열은 피험자들의 컴퓨터 반응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표적인물과

있을 때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면 1점이, 아니오라고 답하면 0점이 주어져 많은 표적인물과 있을 때의 자신의 여러 특성들을 물을 수 있다. HICLAS의 장점은 이 방법이 각 개인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idiographic)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유의미한 힘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특성은 어떤지를 묻고, 그 개인반응을 개별 피험자마다 컴퓨터에 입력하여 다시 반응하게하여 HICLAS 분석을 위한 이원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온 이원 데이터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적이나 대상들이 묶여 대상 유목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대상, 표적들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묶여 특성 유목을 이루게 된다. 이때에 적용되는 분류 틀은 집합 이론 틀로서, 서열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으며, 행과 열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집합이나 상위집합을 동시에 계산한다. 이런 서열관계는 그래프로 표상되고, 따라서 HICLAS는 대상의 구조와 특성의 구조를 분리해서 범주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한편, 동시에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즉 집합이론적 틀을 사용하므로써 데이터의 구조적인 표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법칙적(nomothetic)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HICLAS는 대상과 특성의 세가지 집합이론적 관계를 보여준다. 첫 번째 집합이론적 관계는 등가관계로서, 대상들이 비슷한 특성들의 집합을 가진 경우, 또는 특성들과 연결된 대상들이 동일 집합에 속한 경우이다. 등가의 집합은 대상유목이 되고, 등가의 특성 집합은 특성유목이 된다. 두 번째 집합 관계는 연합관계로서, 어떤 대상유목이 어떤 특성 유목을 소유한다면 그 대상유목은 그 특성 유목과 관련된다. 이때 연결관계는 대칭적으로, 한 대상유목은 한 특성유목과 연결된다. 아무런 특성과 연결되지 않는 대상유목은 잔여 대상유목이라고 하고, 아

무런 대상과 연결되지 않는 특성유목은 잔여특성유목이라고 한다. 세 번째 집합관계는 서열관계로서, 한 대상유목은 그것과 관련된 특성유목들이 다른 특성유목의 하위집합인 경우, 다른 대상유목 아래 놓이게 된다.

## 연 구

본 연구는 힘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과 있을 때의 자아경험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먼저 개인들이 부모를 얼마나 힘있는, 또는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으로 제시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Lips(1985)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자유반응으로 가장 힘있는 사람을 한명 말하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Raven, 1992). 힘과 권력의 의미를 사회적 지위로만 정의하지 않고, French와 Raven (1959)에 따라 다양한 유형에 기초해서 본다면, 인생에서 경험한 힘있는 사람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고, 어머니 역시 중요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힘있는 사람, 또는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자아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힘의 정의가 타인을 지배하는 것(power-over)으로 규정되는 경우, 개인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힘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을 약하고 부정적으로 경험하지만,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긍정적이고 강한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녀와 갖는 관계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돌보고 증진시키기 위해 영

향을 미치는(power-for) 관계라고 가정되었고, 그렇다면 그들과 있을 때 긍정적이고 강한 최선의 자신을 경험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 연구방법

### 피험자

미국 뉴저지 주립 러거스 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57명(남학생: 20명, 여학생 37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9.47세였으며, 18세 20명, 19세 19명 20세 9명, 21세 6명, 22세 1명, 24세 1명, 37세 1명이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류계층이 7명, 중류층이 36명, 중상층이 11명, 상류층이 1명이고, 무응답이 2명이었다.

### 도 구

본 연구의 첫 번째 시행을 위하여 자유응답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질문지에서는 먼저 다중자아개념을 설명하고, 힘있는 타인들, 힘없는 타인들과 있을 때의 자아가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힘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뒤, 인생에서 경험한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을 각각 11명씩 이름이나 별칭을 쓰고, 그들의 직업, 관계, 연령을 적은 후,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왜 힘이 없는지의 이유를 모두 적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주관적인 느낌을 각 사람에 대해 두가지씩 기술하도록 한 다음, 각 사람에 대해 가장 힘있는 사람부터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시행을 위해 첫 시행의 자유응답 반응들을 토대로 컴퓨터에 각 개인 자료가 일련번호에 따라 HICLAS 프로그램에 입력되었다. 각 개인들이 반응했던 힘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상(target)항에, 형용사와 기술문들은 특성(feature)항에 입력되었다. 이때 반복되는 특성이나 유사한 특성들은 삭제되어 30개로 압축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공통특성들이 선정되어 입력되었다.

공통특성은 Williams와 Best(1982)의 형용사 목록에서, 여성적-남성적, 힘있는-힘없는, 긍정-부정 차원과 관련하여 20개가 선정되었다.

## 절 차

첫 시행에서, 피험자들은 12명씩 배정된 시간에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구보조자 5명이 연구의 목적과 반응과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문지 실시를 도왔다. 질문지를 끝낸 피험자들은 자신의 일련번호를 받고, 두 번째 연구를 위하여 약속을 하였다. 첫 시행에 걸린 시간은 60분 정도였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시행에는 피험자들이 오면 컴퓨터 앞에 앉게 하고, 자신의 일련번호를 누르면 개인 마다의 정보가 제시되었다. 먼저 화면에는 이 연구가 타인과 있을 때의 자아의 지각에 대한 연구임을 명시하고, 특정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지를 화면에 나타난 형용사가 묘사해 주면 O를, 그렇지 않으면 X를 마우스로 눌러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가 준비상태가 되었으면, 화면에 “\_\_\_와 함께 있을 때 나는 \_\_\_ 하다”는 문장이 나타났다. 이때 사람 이름은 피험자가 첫 시행에서 제시했던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 중 한명의 이름이고, 뒤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피험자가 제시했던 특성들이거나 공통특성 중 하나이었다. 이 질문에 피험자가 O,X로 답을 마치면, 다음 문장이 제시되어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피험자는 22명의 타인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특성 30개와 공통특성 20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응하고, 보통의 나, 최선의 나, 바람직하지 않은 나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덧붙여 질문받았다. 따라서 총 25 대상(target)에 대해 50개의 특성(feature)을 묻는 1250개의 질문에 답하였다. 두 번째 시행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힘있는 사람과 11명의 힘없는 사람들 중 어머니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분석

을 시도하였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력과 힘의 형태

학생들은 대부분 힘있는 사람의 리스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시하였다. 56명중 54명이 어머니를 힘있는 사람으로, 49명이 아버지를 힘있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를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동시에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사례가 2명 있었고,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한명이었다. 한편 아버지를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한 경우는 한명 있었고 한명은 힘있는 동시에 힘없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부모가 힘없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식이 없다는 것이(5명 100%) 지적되었고, 덧붙여 돈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힘없는 사람으로 보는 아들이 한명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힘의 형태는 표 1과 같다.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지위가 합법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여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힘들 보다는 합법적이고 보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유의하게 많았다. 물론 이 연구대상이 미국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54명중 45명에 달했다. 그러나 취업여부가 합법적인 힘을 가졌다고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공적인 직업이 없거나 하위직(간호보조사, 보조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학생들은 어머니가 합법적인 힘을 가졌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부모라는 가정 내의 지위 자체가 합법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학생들이 어머니의 합법적인 힘을 아버지의 합법적인 힘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즉 가정이라는 조직체 내에서는 어머니의 힘이 합법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한편 남녀 모두 부모의 참조적인 힘을 덜 지각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부모의 강요적, 전문적, 참조적인 힘보다는 합법적이고 보상적인 힘을

표 1. 아버지, 어머니가 갖는다고 지각된 힘의 형태

		합법적 힘	보상적 힘	강요적 힘	전문적 힘	참조적 힘	명(%) $\chi^2$
아버지	남(15명)	7(43.8)	9(56.3)	9(56.3)	10(62.5)	3(18.8)	4.16
	여(34명)	19(55.9)	19(55.9)	13(38.2)	11(32.4)	7(20.6)	9.40*
	합(49명)	26(53.1)	28(57.1)	22(44.4)	21(42.4)	10(20.4)	11.17*
어머니	남(19명)	11(57.9)	12(63.2)	8(42.1)	11(57.9)	5(26.3)	3.62
	여(35명)	21(60.0)	18(51.4)	14(40.0)	13(37.1)	6(17.1)	10.14*
	합(54명)	32(59.3)	30(55.6)	22(40.7)	24(44.4)	11(20.4)	12.00*

\*  $p < .05$

더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아버지의 강요적인 힘과 전문적인 힘, 그리고 어머니의 보상적인 힘과 전문적인 힘을 더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는 절대적인 힘의 지각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도 합법적인 힘을 갖는 것으로 지각됨을 보았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힘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각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22명의 사람들을 힘있는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게 했을 때, 1위와 2위의 힘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지각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힘있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꼽은 사람은 남자 7명 여자 17명이었고, 어머니를 가장 힘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남자 3명, 여자 10명이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31명(59.6%)으로, 남자 12명(66.7%), 여자 19명(55.9%)이었고,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명(40.4%)으로, 남자 6명(33.3%), 여자 15명(44.1%)이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머니를 가장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거나 아버지보다 더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녀의 반응차이가 나타나 남자들은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힘있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적었다.

###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아지각: HICLAS 분석

두 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결과는 HICLAS 모델로 분석되었다. 먼저 HICLAS 모델의 도표로 제시된 결과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아가 속하는 대상(target) 항의 유목이 위계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자아유목 명(%)

		상위유목	중간유목	하위유목	잔여유목
아버지	남(16명)	3(18.8)	4(25.0)	8(50.0)	1( 6.3)
	여(35명)	11(31.4)	6(17.1)	16(45.7)	2( 5.7)
	합(51명)	14(27.5)	10(19.6)	24(47.1)	3( 5.9)
어머니	남(19명)	4(21.1)	7(36.8)	8(42.1)	0( 0)
	여(35명)	8(22.9)	4(11.4)	23(65.7)	0( 0)
	합(54명)	12(22.2)	11(20.4)	31(57.4)	0( 0)

Ashmore 와 Ogilvie(1992)에 따르면, 상위수준의 유목일수록 현저한 유목이며, 정적인 동시에 부적인 반응을 모두 일으키는 양가적인 대상유목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현저하며 양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인 경우가 많았고, 여자 피험자들에게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하위유목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어머니는 잔여유

목에 속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아버지는 잔여유목에 속하는 경우가 3명 있었고, 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특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두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아의 형태가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인지, 평소의 자아인지, 가장 나쁜 자아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 자아형태와 동일 유목에 속하는지, 서열적으로 연결된 유목인지, 서로 같은 특성이 전혀 없는 무관한 유목인지를 알아 보았다.

표 3. 아버지, 어머니와 있을 때의 자아가 속한 유목의 형태 (명)

		최선의 자아		평소의 자아		가장 나쁜 자아				
		동일	연결	무관	동일	연결	무관			동일
아버지	남 (16명)	5	5	6	4	5	7	2	1	13
	여 (35명)	8	14	11	7	19	7	1	10	22
	합 (51명)	13	19	17	11	24	14	3	11	35
어머니	남 (19명)	9	6	4	5	7	7	2	3	14
	여 (35명)	12	11	12	10	17	8	2	7	26
	합 (54명)	21	17	16	15	24	15	4	10	40

표 3에서 보여주는 대로,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대체적으로 자아의 좋은 측면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최선의 자아를 그대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21명(38.9%)에 달했으며, 최선의 자아나 평소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39명(72.2%)이었고, 부모와 있으면서 자신의 나쁜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중 일부를 드러내는 경우는 14명(25.9%)이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아의 특성들을 경험

하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속한 대상유목과 연결된 특성유목에 속해 있는 공통 특성(consensus feature)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통특성은 연구자가 선정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힘있는 특성과 힘없는 특성들을 묘사하는 형용사들로서, 이 형용사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상유목과 연결된 반응의 빈도점수를 기초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표 4. 아버지, 어머니와 있을 때 경험하는 자아의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긍정	부정	t
아버지	5.5(2.6)	1.8(2.3)	-7.36**
어머니	4.9(2.6)	1.6(2.1)	-7.64**
상관(r)	.14	.62**	
	힘있는	힘없는	t
아버지	3.3(1.8)	0.9(1.4)	6.22**
어머니	3.1(1.9)	1.1(1.5)	5.28**
상관(r)	.26	.42**	
	남성적	여성적	t
아버지	4.3(2.4)	3.7(2.4)	-1.41
어머니	4.1(2.2)	3.6(1.8)	-1.39
상관(r)	.36*	.66**	

\* p<.05, \*\* p<.01

표4 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정적인 특성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고(t=-7.36; -7.64, p<.001), 힘없는 특성보다는 힘있는 특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t=6.22; 5.28, p<.001). 한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자아특성과 어머니와 있을 때의 자아특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긍정적인 특성과 힘있는 특성은 아버지



와 어머니에게 상관있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특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관되게 나타나고( $r=.62, p<.001$ ), 힘없는 특성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관있게 나타나고 있었다( $r=.42, p<.001$ ).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힘없는 특성을 지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나 힘없는 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의 표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드러내고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남녀로 나누어 t검증을 해 보았다. 성차는 다른 특성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만을 제시한다.

표 5. 아버지 어머니와 있을 때 남녀의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성		
	남	여	t
아버지	4.6(2.4)	4.2(2.4)	-.57
어머니	4.4(1.9)	3.9(2.3)	-.77
	여성성		
	남	여	t
아버지	2.1(1.5)	4.5(2.3)	3.85**
어머니	2.7(1.6)	4.1(1.7)	2.91**

\* <.05, \*\* <.01

남성적인 특성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적인 특성의 표현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들은 여성적 특징을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은 아버지와 있을

때에는 어머니와 있을 때보다 여성적인 특성을 억압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여성적 특성을 더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성역할에 민감해 짐을 시사한다.

## 논 의

###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

먼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힘의 지각을 몇 가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한 가설은 이 연구의 피험자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상황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여권이 신장되어 비교적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만큼 강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Lips(1985)의 연구도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아버지를 주로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했었다. 물론 Lips의 연구에서는 가장 힘있는 사람을 한명만 지적하도록 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을 11명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비롯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힘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위를 매기게 했을 때에는 59.6%가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힘있는 사람으로 제시하였고, 어머니를 제시한 경우가 40.4%이었다. 이는 Lips의 연구결과보다 어머니의 힘이 훨씬 많은 비율로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남자들의 반응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남성중심적(andro-centric) 사고방식이 암묵적으로 베어있

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 더 그러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합법적이고 보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Yukl과 Falbe(1991)에 따르면, 힘을 지위적 힘(position power)과 개인적 힘(personal power)로 크게 이분될 수 있으며, 합법적 힘과 보상적 힘, 강요적 힘은 지위가 제공하는 힘에 속하고, 전문적 힘과 참조적 힘 등은 개인적 힘에 속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어머니의 합법적인 힘과 보상적인 힘을 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더라도,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라는 지위가 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째, 이러한 반응에는 성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들은 부모의 지위적인 힘을 개인적인 힘보다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높는데 비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전문적인 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능한 한 해석은 여성들은 지위적 힘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위에서 오는 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남성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수혜자로서, 지위적 힘에 덧붙여 개인의 전문적 힘을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넷째, 상대적인 힘의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남학생들도 Chodorow의 이론과는 달리 어머니를 평가절하하기 보다는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면서, 어머니가 다양한 힘을 가진다고 보고, 특히 어머니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Johnson(1978)의 지적과는 달리 어머니의 참조적인 힘을 크게 지각하지 않았다. 이는 힘의 의미를 통제적인 힘(power-over)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힘의 가능성을 알려준 경우, 여성도 힘있는 사람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이 남성과 다른 특별한 유형의 힘을 갖는 것으로

로 지각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적어도 가정이라는 조직체의 수준에서, 자녀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여성이 양육과정에서 오는 참조적 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간접적이거나 무기력함에 의존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적인 힘과 보상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진다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여성 특유의 특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지위적인 힘을 발휘할 수있음을 시사한다.

### 부모와 함께 있을 때의 자가지각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지각은 상위수준의 유목보다는 하위 유목에 속해 있었고, 특히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러했으며, 이들 유목은 최선의 자아나 평소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드러내기 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경험함을 시사받는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갈등관계에 놓이지 않고 좋은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갖는 힘은 자식을 억압하고 부정적으로 통제하는 힘이기 보다는 자식을 격려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더 긍정적인 자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또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나쁜 자아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4명이었다. 이들이 왜 나쁜 자아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ICLAS의 개별적인(idiographic)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때의 유목이 상위수준에 속하는 피험자들이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와 있을 때 자

신의 나쁜 특성 뿐 아니라 좋은 특성들도 모두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부모와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의 측면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모와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억압이나 통제를 느끼는 부정적인 체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2명의 남학생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다른 2명의 남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나쁜 자아만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한 명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나쁜 자아만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지는 힘으로 강요적인 힘만을 지각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부정적인 특성들을 경험하였다. 강요적인 힘이란 개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막는 부정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힘(power-over)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즉 학생들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억압과 통제만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힘의 행사란 개인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특성과 힘없는 특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상관있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에는 맥락특수적인 자아경험이 아니라 개별인물 중심으로 자아경험을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된 개인으로 경험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부모”를 한 범주로 묶어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주의의 폭이 좁아져 자신과 부정적 상황에만 주의가 집중되므로, 부모가 개체로서 보다는 묶여서 지각되어 동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있을 때 남성은 남성적인 특성을, 여성은 여성적인 특성을 주로 드러내

는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적 특성만큼 남성적 특성들을 경험하고, 남성들만큼 남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이고 여성들이 그러한 특성을 길러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남성적인 특성은 경험하지만 여성적인 특성은 남성적인 특성의 절반 정도 표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아버지와 있을 때 남성적인 특성을 더 경험하고 여성적 특성은 더 적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몇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가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특성을 장려하지만, 남성들이 여성적인 특성을 보일 때, 성역할을 이탈한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성이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이고,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은 성숙하지 못한 특성에 속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Williams와 Best(1982)의 형용사 목록에서 ‘여성적’에 속하는 단어들은 부정적인 차원의 단어가 많았고, ‘남성적’에 속하는 단어들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형용사목록에서 긍정-부정의 차원을 통제하여 단어를 선택했으나, 피험자들의 반응은 여성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성 피험자들이 아버지와 있을 때 여성적 특성을 더 억압한 것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성별(gender)의 구조자로서 성역할을 부추기고, 이것이 아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 맺음말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소수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인 접근과 법칙적인 접근을 함께 할 수 있는 HICLAS 방법을 적용하므로써, 그동안 여성심리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양적 접근이나 실험적 접근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개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양적인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통제에 반영되지 않는 않지만 이탈된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반응의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두 분석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사하는 힘은 다양한 형태로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진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것이며, 여성도 상황에 따라서는 힘이 있는(powerful) 존재이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도 중요한 힘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힘이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힘(power-over)일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힘은 어떤 형태를 띠든, 자녀의 성장을 격려하고, 힘을 기르도록 하는 'empowerment'의 개념의 힘(power-for)일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가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보살핌(caring)'이 내포된 힘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받는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적'이라고 보는 특성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비해, 남성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보는 특성들을 억압하고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특성 형용사들을 사용할 때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분류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았지만, 피험자들은 그러한 분류에 의해 특성들을 달리 경험하고 있었다. 앞으로 여성심리학자들이 해야 할 작업은 개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개념의 분류틀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 형용사들이 부정적인 뜻을 함의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특성을 기르기 보다는 긍정적 특성인 특성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여성적 특성에 좋은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다면, 남성들 역시 '여성적'이라는 고정형적인 틀 때문에 좋은 특성을 억압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권력과 힘의 맥락에서도 억압과 통제와 관련된 '남성적' 힘이 더 우위에 있고 강력하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성적'이라고 도외시했던 돌봄에서 나오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적, 남성적 특성이라는 고정관념적 틀이 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리치(1995).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서울: 평민사.
- 조은, 이정옥, 조주현(1997). 근대 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카플란과 세드니(1988).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역. 성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Ashmore, R.(1990). Sex, gender, and the individual.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 488-526). NY: Guilford.
- Ashmore, R. & Jussim, L.(1997). Introduction: Toward a second century of the scientific analysis of self and identity.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pp. 3-2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shmore, R. & Ogilvie, D.(1992). He's such a nice boy...When he's with grandma: Gender and evaluation in self-with-other representations. In T.Brinthaupt & R. Lipka(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 (pp.236-290). NY: SUNY Press.
- Chodorow, N.(1987).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 Press.
- Deaux, K. & LaFrance, M.(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ition)* (pp. 788-827). NY: The McGraw-Hill Co.
- DeBoeck, P. & Rosenberg, S.(1988). Hierarchical classes: Model and data analysis. *Psychometrika*, 53, 361-381.
- Dinnerstein, D.(1976). *The Mermaid and the minotaur*. NY: Harper & Row.
- Fiske, S. & Taylor,M.(1991).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French, J. & Raven, B.(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pp. 150-167).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Gergen(1985).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0(3), 266-275.
- Griscom, J.(1992). Women and pow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 389-414.
- Henley, N.(1977). *Body politics: Power, sex, and nonverbal communication*. NJ: Prentice- Hall.
- Johnson, P.(1976). Women and power: Toward a theory of effectiv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99-110.
- Lips, H.(1985). Gender and the sense of power: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go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5), 483-489.
- Markus, H.(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iller, C. & Cummins, A.(1992). An examination of women's perspectives on pow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 415-428.
- Raven, B.(1993). The bases of power: Origins and recent develop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49(4), 227-251.
- Rosenberg, S.(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pp. 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don, K., Ryan, R., Rawsthorne, L., & Hardi, B.(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 1380-1393.
- Weber, M.(1946). Class, status, and party. In C. Heller(Ed.), *Structured social inequality* (pp. 14-24). NY: Macmillan.
- Williams, J. & Best, D.(1982). *Measuring sex stereotypes: A thirty-nation stud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Yukl, G. & Falbe, C.(1991). Importance of different power sources in downward and lateral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3), 416-423.

## Perception of Mother/Father's Power and of Self-with-Mother/Father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perceptions of mother's and father's power and self-with-mother/father. In session one,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an open-ended questionnaire in which respondents identified powerful people in their lives and features they experienced when with each powerful people, and also provided which power the powerful people have had. In session 2, same students responded computer-assisted ratings(HICLAS) which required to rate whether 60 features described themselves when with each powerful people.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mothers were perceived as powerful people as fathers, and they had more legitimate and reward power than coercive and referent power. Second, many students' self-with-parents were positive and powerful. But a few people experienced worst-self when with parents because of parents' coercive power. Third, in contrast female students experienced both masculine and feminine features when with parents, male students showed mainly masculin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tatus power and "empowerment", and of appropriate social role behavior.